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보호종인 Willi Wanuschrecke(Billy Bush Cricket) 그뤼네스 반트 프로젝트를 상징하고 있다.

그뤼네스 반트는 역설의 산물이다. 독일이 동서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뤼네스 반트가 탄생할 것을 예견한 사람은 없다. 통일이 닥치자 몇몇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보존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점경주민들을 설득하고 정부에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또한 그뤼네스 반트는 서독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동독이 만든 것이라는 점도 아이러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의 탈출을 원천봉쇄하고자 만든 철조망과 지뢰밭이 지금의 그뤼네스 반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자각한 사람들이 동독인들이라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독일과 달리 남북간 동족 전쟁까지 치르고도, 남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미국을 대표로 한 유엔군과 북한과 중국이 당사자가 되어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DMZ라는 유산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DMZ의 최적의 보존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그뤼네스 반트의 체험 (<http://www.erlebnisgruenesband.de/>)과 분트(<http://www.bund.net/>)라는 독일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과, 인터넷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첨가하여 쓰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철의 장막(Iron Curtain)에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로

1946년 미조리(Missouri)에서 윈스턴 처칠이 ‘평화의 골근(骨筋)(Sinews of Peace)’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철의 장막(Iron Curtain)’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동서 양진영의 정치적 군사적 장벽을 표현한 말이었다. 냉전 시대의 철의 장막은 노르웨이와 구 소련의 국경의 바렌츠(Barents) 지역에서 흑해에 이르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경계선으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물리적 장벽이었다. 이후 40년 동안 철의 장막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차갑고 대처 불가능한 장벽이 되었다.

특히 이들 구간 중에서 동서독의 장벽은 철조망과 장벽, 그리고 지뢰가 깔린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이 장벽으로 영토의 분단과 함께 가족과 친구가 생이별을 해야 했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등,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이슬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잔인한 공간 안에서 자연은 인간의 간섭 없이 생명을 품었고, 다른 어느 곳에서 보기 어려운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철의 장막 외부의 기류가 따뜻하게 변하기 전까지 자연은 다양한 생물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던 것이다.

정치적 변화가 처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9년으로, 9월 19일 ‘범유럽야유회(Pan-European Picnic)’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지방 소프론(Sopron)에서 열렸다. 이 행사기간동안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이 상징적으로 단기간 개방되었다. 이때 동독으로부터 온 관광객 600여명이 이 기회를 틈타 철의 장막을 뚫고 서방으로 탈출했다. 1989년 6월 27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양국 수상은 양국간의 국경철조망을 잘라내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비로소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물고기가 터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14년 전부터 분트(BUND)의 바이에른 지부의 전문가들은 독일 국경선 안에서 서식하는 새들의 생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과 서식처를 발견했다. 1989년 이후 그뤼네스 반트의 보전을 위해 다른 단체와 정부 기관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 후 1,393km의 생명선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탈바꿈하여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즉 ‘녹색 띠’가 되었다. 이런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의 개념에 의거해 유럽의 그린벨트 개념이 도출되었고 유럽을 가로지르는 중추적 생태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그뤼네스 반트는 동서독 통일의 상징이 되었고, 접경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연결시키고, 유럽연합의 문화적 유산이자 공통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죽음의 지대에서 생명띠로

독일 내 동서독 국경은 서독의 최전선에서 철조망이 쳐진 동독 구역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전투 공간(Niemandsland)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국경수비대의 순찰로를 따라 서식하는 여러 종의 조류가 발견되었는데, 이쪽 국경에서 저쪽 국경으로 넘나들었다. 그러나 공포의 접경지대에서 새들은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했다. 다만 철조망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우듬지로 이용할 뿐이었다.

분트(BUND)의 바이에른 지부의 자연보호운동가들은 1975년부터 이 국경의 좁은 통로에 서식하는 자연생물들의 종을 조사해 목록으로 만들어왔는데, 이전에는 죽음의 지대가 거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서식지임을 증명해낸 것이다.

40년 후, 마침내 이 비인간적인 국경이 무너지자 많은 용기 있고 헌신적인 동독인들은 이 독특한 자연보고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이 죽음의 지대를 평화의 녹색통로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989년 12월, 자연보호연합(Bund Naturschutz)



그뤼네스 반트(녹색 실선) - 영어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린벨트와 개념이 다르다. 냉전시대 국경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녹색지대로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 비견할 수 있다.

(BN)이 조직되었는데, 동서독을 망라한 자연보호주의자 400여명이 바이에른 작센 경계지역인 호프(Hof)에 모였던 것이다. 여기서 그뤼네스 반트의 개념과 이름이 탄생되었고, 그뤼네스 반트를 보호하는 첫 번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3년 후,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아이

취스펠트(Eichsfeld)에서 대지미술계획(大地美術計劃, LandArt project)인 ‘동서관문(東西關門, West-Östliches Tor:West-Eastern Gate)’의 개회사에서 시작되어 전유럽 그린벨트 구상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그린벨트는 자연보존계획의 가장 획기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근현대사에 있어 살아있는 기념비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데에 유럽인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분단이 만들어 낸 독일의 자연유산

독일 통일의 트로피라고 일컬어지는 그뤼네스 반트는 이전 독일국경 안쪽을 따라 형성된 자연서식지로 2005년 11월부터 ‘국가 자연 유산(National Nature Heritage)’으로 선포되었다. 발틱해(Baltic Sea)에서 작센 바이에른 포그트란트(sächsisch-bayerische Vogtland : Saxon-Bavarian Vogtland)에 이르는 연결된 17개의 자연서식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독일 자연풍경을 종단으로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자연이 조각한 자연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전의 국경은 1,393km에 걸쳐 무자비하게 동서로 국토를 분단했지만, 자연은 이 잔인한 장벽을 천혜의 보고로 만들었다. 죽음의 공간은 생명선으로 바뀌었고 동독(GDR)의 소위 순찰로와 서독(GDR)의 국경 사이를 유럽의 ‘중앙 그린벨트’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통로는 50~200m 폭으로, 휴한지, 수풀지대, 삼림지대, 강, 습지와 소택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이 벨트뿐만 아니라 인근 보호 지역과 야생지역 등이 접경지대의 그늘 아래 보존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의 독특한 자연서식지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일의 현대사에서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1) 2002년 구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전 독일 환경부장관 위르겐과 본트(BUND)의 작품에서 시작되었다. 독일 연방 환경 재단이 자금을 조달하여, 그들은 서부 - 동부 게이트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천연 기념물과 보호 서식지를 연결하고 있다.



그뤼네스 벨트. 중앙의 길게 트인 공간이 과거 국경선 철책이 세워졌던 곳이다.(사진제공:뉴시스)

그뤼네스 반트-멈추지 않는 다양성

그뤼네스 반트, 즉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도드라지는 색깔 때문이다. 자연 색깔들인 다양한 녹색과 갈색과 청색들 사이로 반짝이는 꽃봉오리들이 피어 오른다. 이는 2005년 11월, 그뤼네스 반트가 독일 전체에 '국가 자연 유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2007년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이라는 연방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인해 서였다. 이는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시행된 현장 조사에서 결정된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뤼네스 반트 목록'이라는 조사개발 프로젝트가 분트(BUNT)의 조사위원회와 자연보존을 위한 정부기관(the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독일자연보호사상 최장의 녹색

지대로 지정되었고, 전장1,339km, 면적177km²에 이르는 거대한 생태적 서식지가 형성되어 높은 생태적가치를 이루게 되었다.

그뤼네스 반트가 가진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면

- 109개소의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
- 독일 멸종위기 리스트(the Red List of Germany)의한 위기서식지의 48%
- 자연보존구역의 28%
- 유럽 서식지 지침(EU Habitats Directive)의 보호에 의거한 동식물 서식지의 38%
- 수계(水系), 초지, 휴경지, 삼림의 60%
- 자연에 가까운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85%, 길이로서는 80%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뤼네스 반트는 아직도 위협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분트(BUND)

분트(BUND)의 원래 명칭은 Bund Fu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이 된다. 1973년 9월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창설되었고, 주마다 지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시군구 지부처럼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창기 상임활동가 5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체 연방을 관할하며 상임 활동가만 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초기 분트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연방정부가 강행하려던 프라이부르크 인근 비일 원자력 발전소 반대운동이었고 마침내 연방정부의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 분트는 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운동으로 영역을 확장해 갔다. 즉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분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환경NGO로 단체 대표는 이들 시군구 지부의 대표 가운데서 선출하며 연방 전체로 약 2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독일 최대의 환경보호단체이다.

특히 분트는 이익단체를 넘어서 초정당적 입장에서 환경 정책에 관한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자연보호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토지개발 및 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를 갖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분트는 '환경박람회'나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젝트, 환경프로그램제작, 환경보전활동 모니터링 등 적극적으로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적 연대로 뷔르셀에 본부를 둔 유럽환경국(EEB)의 회원,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는 환경연락 센터(ELC)의 회원단체, '지구의 벗' 독일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에너지 문제, 열대우림 등 생태적 보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주의회 활동 감시에 충실해서 분트 회원은 매주 주 의회를 방청해 의원들의 환경에 관한 입법 활동과 환경관계의 의결과 투표의 찬반여부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선거 전에 발표하여 언론이 크게 다루도록 만들고 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낙선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자연보호 관련법안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낳고 있다.



분트가 발행한 홍보 팸플릿.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그린벨트 분트에서 중요한 환경보호지역을 구입해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출처:분트 팸플릿 캡처)

이제 이 독특한 생명선은 조각으로 나뉘어져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면적의 15% 가까이 목초지와 경작지, 도로와 공장부지 등으로 파괴되었다.

멸종위기종의 피난처

독일 멸종위기 리스트(The Red List of Germany)에 올라있는 동식물의 600여종이 그뤼네스 반트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교란되지 않은 지역이거나 광범위하게 경작된 지역, 즉 휴경지, 장초지(長草地, tall grass meadows), 초지, 물가나 산림에 자연적으로 연결된 지역 등에서 발견되는 생물종들의 피난처가 되어 왔는데, 중베짱이, 검은딱새종류, 붉은등때까치, 호반새, 멧황새, 수달, 마르타곤 나리, 할미꽃, 금매화 등이 있다.

2003년 6월 그뤼네스 반트에서 열린 '종다양성 GEO 날(GEO Day of Species Diversity)'은 분트(BUND)와 환경잡지 GEO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500명의 전문가들은 단 24시간 만에 그뤼네스 반트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 5,200종의 도표를 만들어냈다. 몇 가지 종들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클렌부르크 포에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만 서식하던 애기뿔풀이 그뤼네스 반트에서 다시 발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으로 엘베-알트마르크-벤트란트(Elbe-Altmark-Wendland) 지역이나 하르츠 산맥(Harz, 동서 양독일에 걸쳐서 Elbe 강과 Weser 강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낮은 산맥), 튀링거 발트(Thuringer Wald, 독일 중부의 삼림 산악 지대), 점판암질 산맥(Schiefergebirge), 프랑켄 발트(Frankenwald, 프랑켄 삼림지대) 등이 있다.

끊김이 없도록 하는 추진계획

현재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의 가장 의미있는 자연보존 계획의 하나가 되었다. 오랜 동안 이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이끌어 내 일반 시민과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자연서식처의 연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형태의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이 들중 많은 부분이 분트(BUND)에 의해서 직접 시행되거나 보완되었다.

알트마르크(Altmark²⁾)의 분트 작센 알할트(Sachsen-Anhalt) 지부에서는 삼림지역과 초지 등에 작은 소택지를 만들어 습지를 조성해 황새나 기러기 등 철새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분트 헤센(Hessen) 지부에서는 뤼(Rhön)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울스터(Ulster) 강의 독을 초기상태로 확장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튀링겐(Thüringen) 지부에서는 희귀 메뚜기의 일종인 중베짱이가 출현한 지역의 땅을 구입하여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휴경지를 자연 초지로 변화시키고 더 이상 침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한반도의 DMZ와 그뤼네스 반트

DMZ는 그뤼네스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DMZ는 한반도가 처음 분단되었던 1945년의 38도선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결과물로 재탄생했다는 것부터 큰 차이가 있다. 그뤼네스 반트는 동독이 주민의 서독 탈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동독 쪽에만 민간인 출

2) 알트마르크(Altmark) : 독일의 작센 알할트(Sachsen-Anhalt)주의 북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브란덴부르크 후작(Brandenburg margraves)의 영지였다. 신하우젠(Schönhausen) 토박이였던 비스마르크가 프러시아의 요람(Cradle of Prussia)이라고 부른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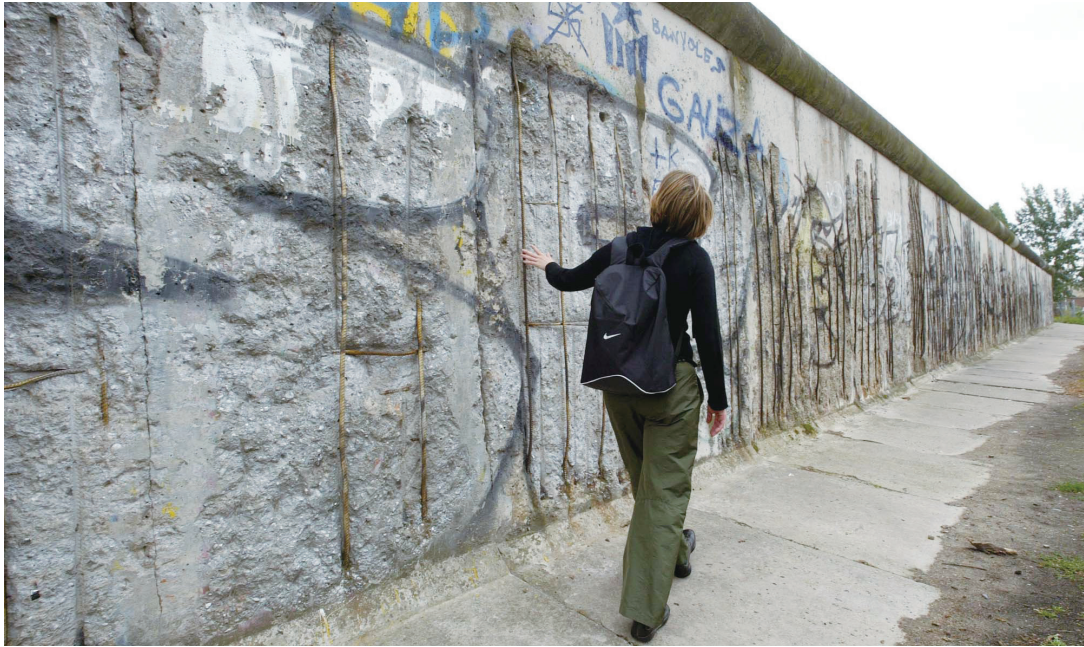




입이 엄격히 통제된 반면, DMZ는 남북한 양쪽 모두 통제를 하고 있다. 길이는 DMZ가 238km라면 그뤼네스 반트가 1,339km로 국경선의 길이는 더 길지만, 면적으로는 177km²의 그뤼네스 반트에 비해 DMZ는 570km²로 3배가 넘는다. 이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선 중심으로 2km씩 후퇴하여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 각자 철책을 쳤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으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목적으로 한계선을 유지했다면 면적은 900km²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한다.

DMZ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뢰이다. 전쟁당시 공중에서 지뢰를 살포했다는 기록처럼 정확한 매설위치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 100만발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안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공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천혜의 자연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DMZ 내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능하다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철책부터 걷어내자는 주장도 결국은 DMZ 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담장 허물기에 다름아니다. DMZ는 전쟁의 유일한 유물이자 역사적 사료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베를린 장벽. 서쪽쪽은 그림과 낙서로 마치 벽화를 연상케했다.(사진제공:국민일보 광경근 기자)

더욱이 우리민족이 통일 후 세계평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DMZ가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DMZ의 개발은 자연보존이 최우선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개발도 단시간 내에 졸속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잘못된 계획과 졸속 개발로 DMZ의 본모습을 잃는다면 DMZ를 방문하면 곧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고 나서야 독일인들이 그 자체가 거대한 기념물이자 관광자원임을 깨닫고 아쉬워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복원하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원한 것이 본래의 장벽이 아닌이상 상빙적 의미는 사라진 복재건축물이 될 뿐이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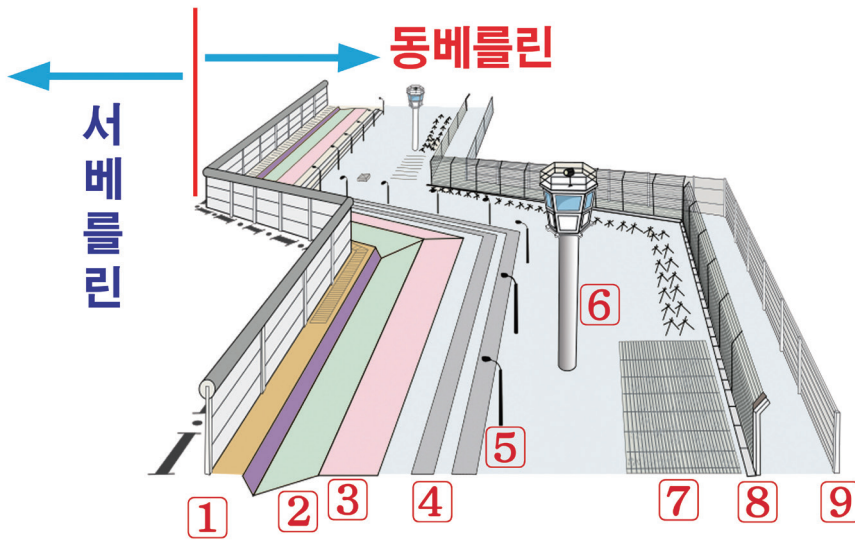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DMZ의 훼손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할 귀중한 유산을 현재에서 빼앗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리:홍석준(편집국장)



목함지표. 지뢰탐지기에도 발견할 수 없어 악명이 높다. 가로 20, 세로 9, 높이 4센티미터 정도의 나무상자로 마치 옛날 필통 모양. 그 안에 200그램 가량의 폭약이 기폭장치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지난 2010년 7월 연천 장남면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 지류 사미천에서 낚시를 하던 한 모씨가 2발의 목함지표를 가지고 나온다 이 중 1발이 터져버리면서 숨졌고 동행한 김모씨도 중상을 입었다.(사진제공:뉴스1)

베를린 장벽 및 동서독 국경 모형도



① 전방차단벽 162km ② 차량차단92km ③ 컨트롤선165km ④ 순찰로172km ⑤ 투광 조명등 길177km ⑥ 컨트롤타워와 관리자실90개소 ⑦ 차단지면38,000 전자차단19km ⑧ 경계신호 울타리148km ⑨ 배후벽68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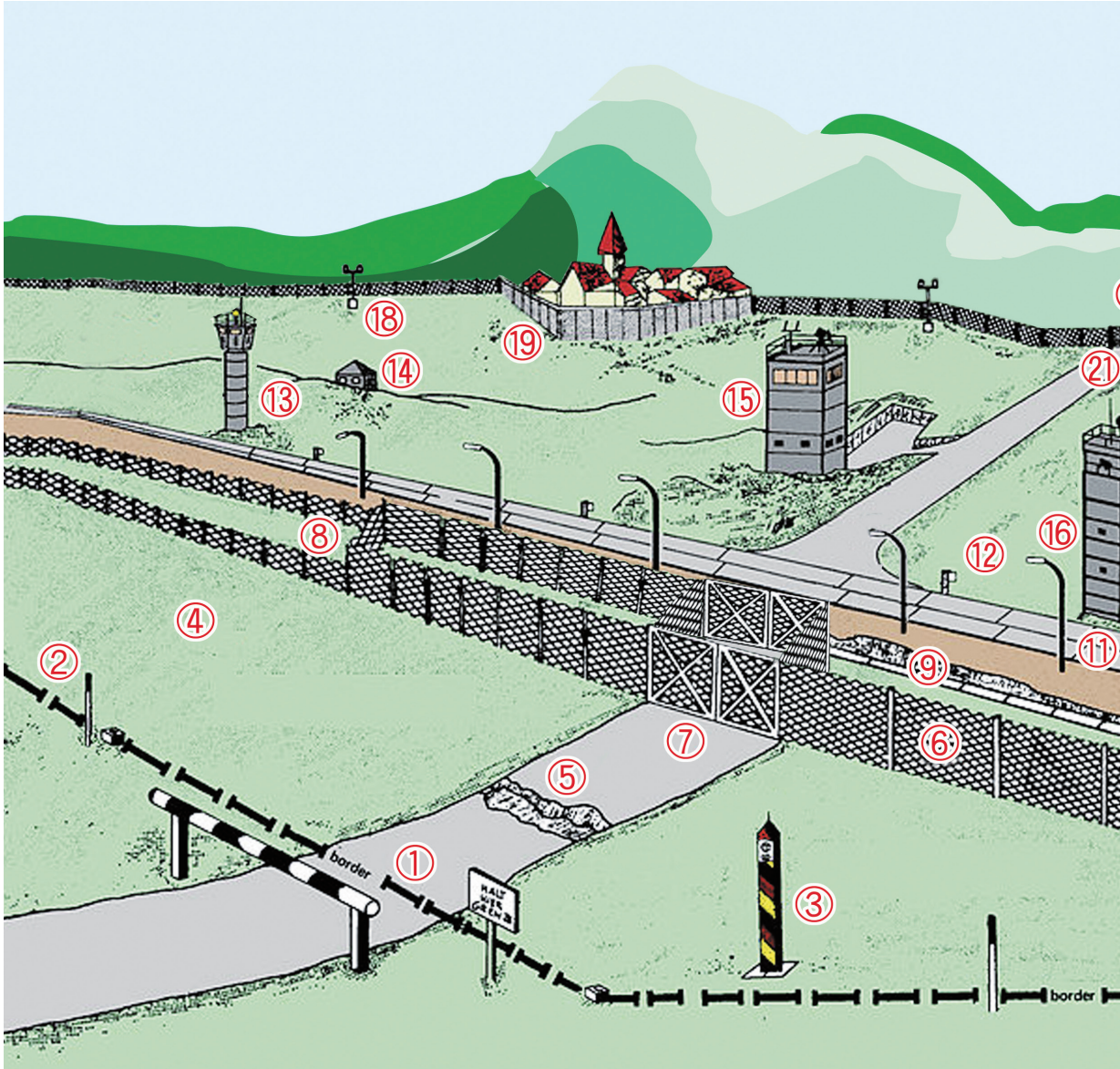
1961년 8월 12일, 당시 동독 서기장 에릭 올브리히트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는 문서에 최종 서명한 그 날 자정부터 동독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장벽 설치 작업이 개시되어 서베를린과 동독의 국경선 156km 구간과 동서 베를린 접경 43km를 완전 차단하는 장애물이 전격적으로 설치했다. 이때 까지 동독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350만 명의 탈주자가 발생하였는데,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이 젊고 유능한 고급 두뇌 집단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장벽은 동서독 국경선보다 2~3m 동독 쪽으로 후퇴하여 건설되었는데, 장벽에 문제가 생겨 서독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 차원에서였다. 시멘트 장벽과 100m 후방의 1차 저지 철조망 사이의 100m 공간에 지뢰 및 다양한 탈출방지 장애물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죽음의 띠(Death Strip)

라고 불렸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탈출하기 쉬워 보이는 국경 지역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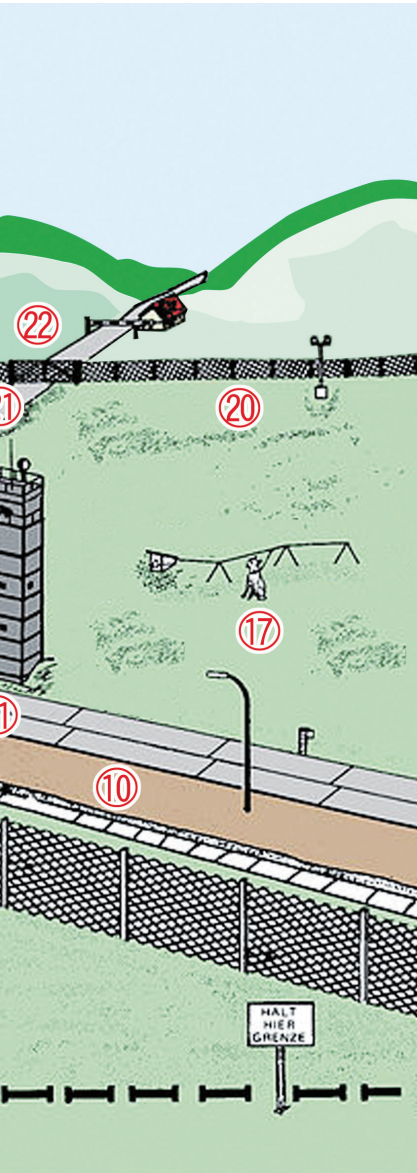
동독 당국은 156km에 달하는 국경선을 탈출로부터 철통 방어하는 것의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군 부대를 집중 배치했다. 여기에 웅덩이를 파서 차량 돌파를 막고, 건드리면 터지는 조명탄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집중 가설했다. 특히 국경 전지역에 설치된 지뢰와 부비트랩은 탈출 불가능한 공포의 장벽이 되었다. 여기에 국경수비대나 슈타지는 국경선 부근을 허가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갔다.

따라서 접근이 쉽고 일단 넘기만 하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베를린 장벽으로 탈주자들이 모였던 것이다.



1984년경 국경지역 무장 시스템 모형도

동독은 탈출자가 늘어나자 1961년 8월 13일 국경지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던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웠다. 위 그림은 서독 쪽에서 본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동서독 국경선 조감도이다. 각 번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독과 동독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선으로 그어 나타낸 것. 10미터 정도 후퇴한 곳에 1선 철책(6번)과 이로부터 500미터 후방에 2선 철책(18, 20번)이 설치됨.
- ② 동서독을 연결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서독은 포스트를 세워 국경지역을 나타냈음. 포스트 외에 꺾말을 세워 "HALT HIER GRENZE" (멈춤, 국경지역)이라고 표시함.
- ③ 국경선 바로 전에 흑색, 적색, 황색 사선 띠를 두른 국경 표시기등.
- ④ 동독의 무장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의 비무장지역,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음.
- ⑤ 탈주하려는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파놓은 도랑.
- ⑥ 동독의 1선 철책, 2선 철책에서 1선 철책까지 500~1,000m 길이의 촘촘하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보호지역(Protective Strip)이 있었음. 1선 철책은 통상 국경선보다 약간 뒤(10~100m 정도)에 설치됐음. 철책의 훼손 등 국경분쟁을 의식해 약간 뒤에 설치했다고 함. 1선 철책은 195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단계별로 점차 월경이 어렵도록 강화되었는데, 최초에는 1.2~2.5m 높이의 단순한 가시 철조망이 전부였고 국경선에 거의 맞닿은 곳에 설치되었음. 1950년대 후반에 보다 돌파하기 어려운 2중 가시철조망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동안 촘촘하고 치밀한 구조의 3세대 장벽이 설치됨. 이 철책의 그물망 간격은 손가락 크기만큼 촘촘하고 날카로워서 쇠를 잘라내는 볼트 커터나 와이어 커터로는 여간 해서 찢어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국경선보다 동독 쪽으로 더 후퇴하여 그 때까지 있던 조잡한 철조망을 걷어내고 3.2~4.0 m 높이로 설치됨. 또한 땅속까지 깊숙이 설치되어 장벽 밑으로 굴을 파는 것도 어려운 구조임.
- ⑦ 두꺼운 장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경비병들이 필요 시 장벽 밖으로 나가서 순찰을 돌거나 장벽 보수공들이 장벽 밖에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
- ⑧ 도로 왼쪽으로부터 동독의 철책이 이중 철책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 1966년부터 1980년대까지 국경선의 절반 정도 범위에 걸쳐서 약 130만 발의 소련제 대인 지뢰가 매설되었다고 함. 이를 죽음의 띠 (death strip)이라고 불렀음.
- ⑨ 안쪽 철책에서 잇대어져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배수구가 설치됨. 차량으로 철조망을 뚫고 서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
- ⑩ 투광 조명등 지역

- ⑪ 순찰로
- ⑫ 투광 조명등, 국경지대를 감시하는 강력한 조명.
- ⑬, ⑮, ⑯ 개활 초지에 서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탑들, 13번은 1969년도에 건립된 것인데 구분수형이어서 전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16번 형태의 안정된 망루가 1970년대 중반에, 15번은 감시 망루 겸 이 지역 경비 담당 지휘소, 6~11m 높이의 이런 망루가 통일되던 해인 1989년까지 거의 700개가 구축되었음. 모든 망루에는 1,000와트에 달하는 고성능의 회전식 탐조등과 고정식 총기 거치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경비병이 망루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지체 없이 총기를 발사할 수 있었음. 모든 감시 망루의 출입문은 동독 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 쪽에서는 경비병이 망루에 출입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 ⑰ 감시견 사육장. 탈주자가 나타나면 짖기 시작함.
- ⑱ 감시 벙커. 2인 1조로 근무하는 벙커형 감시 초소로 망루와 망루 사이에 구축되어 있었음 1,000여개에 달함.
- ⑲, ⑳ 투광조명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2선 철책. 높이는 2m 이고 총 길이는 1,185 km에 달함. 이 철책에는 저 전압의 전류가 흐르는 가시철조망이 둘러쳐 있어서 누군가 이 철조망을 건드리거나 절단할 경우 경보음이 울려서 인근에 있는 경비병이 알아차리도록 되어 있었음.
- ㉑ 2선 펜스 뒤에 국경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된 주민만 살고 이들은 일몰 후에는 통금이 적용됨. 철책을 둘러 국경에서 격리함. 국경과 접한 곳은 국경 너머가 보이지 않도록 3~4m 높이의 콘크리트나 목재 장벽을 세

워 놓고 또한 모든 건물의 국경 쪽을 향한 창문은 막아서 봉쇄시켰고, 국경선과 너무 가깝다고 판단되는 가옥들은 전부 헐어버렸음.

- ㉒ 국경접근로의 철책에는 단문이 설치됨.
- ㉓ 철책 안 동독 쪽 접근로에는 이동을 막는 차단기와 검문소가 설치됨. 155마일인 한반도 휴전선에 비해 동서독 국경은 808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임.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동독인이 접근한다면, 먼저 제한구역을 넘어서야 함. 이 제한구역은 국경에서 5km까지 평행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진입이 엄격히 제한됨. 이 구역 안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주민만이 살며 이들은 같은 제한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동네와의 내왕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음. 야간 통행금지 제도가 적용되고 담장은 없었으나 이런 검문소가 있어서 주민의 접근을 막았음.

이처럼 엄밀히 말하면 철책은 동독에만 있었고, 서독 쪽은 대부분 철조망 바로 앞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그뤼네반트와서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지대는 동독이 만들었던 '죽음의 띠(Death strip)'가 통일이라는 전환점을 통해 평화와 생명의 '녹색 띠(Green Belt)'가 되었다.

분단 40년 동안 인간의 출입이 저지당하자 동식물의 천혜의 생태계가 형성된 셈이다. 북쪽 바닷가에서부터 저지대, 평원, 습지, 삼림지대 등 모든 종류의 지형을 통과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포함해 200여 종류의 희귀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곧 자연보호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체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의 덫, SM-70



1선 철조망에 동독 국경수비대가 가설해 놓은 부비 트랩 형태의 소련제 SM-70 대인 지뢰. 철조망을 건드리면 콘 형태의 강통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파편 조각들이 사방으로 폭발하면서 비산되어 탈주자를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게 만든다. 지뢰와 연결된 2개 전선 중 어느 것 하나 하고만 닿아도 즉시 폭발된다. (사진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1970년대에는 부비 트랩 형태의 SM-70 대인 살상 무기가 60만 개 이상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동독 주요 탈출경로를 따라 약 440km 걸쳐 설치되었는데, 비용만 총 4천4백만 동독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SM-70 비산(飛散)형 지뢰의 타격 범위는 120m 정도이고, 살상반경이 25m에 달해 이 장치에 당한 사슴이 완전 해체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폭발시 탈주자 쪽으로만 파편이 터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추적하는 경비병이나 군견 등이 혹시라도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만 확산되는 무서운 살상 무기였다.

순수 민간인 탈주자가 이 잔혹한 지뢰에 희생되는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에서 야만적인 동독을 축출하려는 움직임과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1984년도에 동독 정부는 매설했던 지뢰들을 전부 회수하였다.

작동원리

- ① 인계철선 ② 압력 전달 장치 :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압력의 변화가 생김 ③ 폭발 장치 : 압력의 변화를 뇌관케이블에 전달함 ④ 뇌관케이블 : 압력 변화가 전달되어 뇌관을 터뜨림 ⑤ 파편 비산 장치 : 뇌관이 터지면서 많은 파편들이 전방으로 발사됨. A: 조류철선, 새들이 인계철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철선 B: 조류철선 지지대 C: 연결막대 D: 옆SM-70에 연결된 인계철선 E: 플라스틱 보호틀 F: 지지 파이프

